

빈티지 컬렉션에서

sure

시셀 카델(SISSELKAH)
38세 페인터&조각가, 마트



1 1854년 빈터빌라 페인팅에 하우스 오브 워스의 (19세기 파리 일루미네이션 스타일) 드레스를 입은 유채화 소녀
2 1857년 하우스 오브 워스의 실크 수직 비딩의 일스카와 이브닝 드레스들
3 1900년대 말기의 하우스 오브 워스의 알트 드레스 4,5 그녀의 어머님에는 빈터빌라와 페인팅이 가득하다
6 그림의 그녀 연극 무대 모델은 창안 경험이라는 그녀의 취향은 고급스러운 그녀 재해다 7 카우보이 무늬는 인산이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고 불확실하다는 그녀에겐 미술 그림공명이 그려진 것이다 8 오프 나오프의 스타일에서 귀족을 칭찬

동화 속 전사처럼 눈부신 금발과 신비롭고 온화한 분위기를 가진 시셀 카델의 생활과 취향은 그녀만큼이나 낭만적이다. 평소 누군가와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을 것 같고, 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녀는 전형적인 수집가다. 자칭 '벼룩시장 중독자'라고 말하는 그녀가 열광하는 것은 다음 아닌 고급스러운 빈티지. 그녀가 세계를 뒤지며 수집하는 물건은 클래식 모로코 담요, 1970년대 카우보이 체크 스커트, 빅토리아 귀고리, 입생 로랑의 벨트, 인도산 손수공예 실크 스카프, 오래된 아프리카 예술품 책들 등 다양각색이다. 그러나 보물 상자 같은 그녀의 옷장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템이자 그녀가 가장 아끼는 수집품은 바로 힘들게 건진 전설적인 파리의 쿠티리에(couturier) '하우스 오브 워스(House of Worth)'의 1898년 오프 구튀르 드레스다. 로맨티시즘과 인상파의 경향이 세상에 첫 데뷔한 1800년대의 말기 스타일이 그녀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뉴욕 컬럼비아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그녀의 작품 속 환상적인 조정과 부유한 색감에 생생하게 반영된다. 본인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물건들을 가까이 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다.



her favorite place ■ 첼시 피어스(Chelsea Pier),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은 뉴욕에서 최고라고 확신해요. 요가와 필라테스 클래스의 교사까지도요. www.chelseapiers.com ■ 고향인 캘리포니아의 타호 국립공원 지역 안에 저만의 비밀 호텔이 있어요. 제 그림에 나오는 장소가 바로 그곳인데, 학창시절에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무리 많이도 매년 한두 번씩은 찾아가요. ■ 오리엔탈 가구점 'Sheherazade'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www.moroccan-decor-furniture.com